



# 신문협회 신년 발행인 세미나 개최



신문협회 신년 발행인 세미나가 지난 1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겸 빅데이터 AI센터 센터장이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트렌드 및 미디어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 재경 종합지

## AI 혁신·저널리즘 강화로 경쟁력 확보

● **경향신문**은 창간 80주년을 맞아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키는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독립 언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심층 콘텐츠를 강화하고, 문화·포럼·전시 등 사업 영역에서도 성과를 이어간다.

● **국민일보**는 기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도적이고 균형 있는 보도를 이어가며 신뢰받는 언론의 역할에 집중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기사 번역과 영문판 구축으로 해외 독자층 확대에 나서고, 디지털 혁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 **동아일보**는 사실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뉴스의 깊이와 영향력을 강화한다. 지면·방송·디지털·미디어 사이니지를 아우르는 플랫폼 경쟁력을 바탕으로 뉴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콘텐츠 팬덤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다각화를 추진한다.

● **서울신문**은 콘텐츠 경쟁력을 중심으로 두고 디지털과 AI를 생존 전략으로 추진한다. 정책 뉴스와 공공 영역에서의 강점을 유지하고, 지면과 온라인의 투트랙 전략을 통해 어젠다 설정 기능을 강화한다.

● **세계일보**는 언론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하며 위기 극복과 도약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

## 회원사 신년사로 본 2026

## 콘텐츠 혁신으로 위기극복·도약

병오년(丙午年) 새해 신문협회 회원사의 신년사 키워드는 △AI 전환 대응 △디지털 플랫폼 강화 △콘텐츠 차별화 △신뢰 회복 △독자 관계 강화 △수익 구조 재편 등이다. 협회 40개 회원사가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소개한다.



신문협회 회원사는 1월 16일 현재 재경 27개사, 지역 27개사이다.

고, AI 경영 체제를 본격 가동해 콘텐츠 품질과 경영 효율을 높인다.

● **조선일보**는 올해 ‘팩트 퍼스트’와 신뢰 회복을 중심 가치로 삼는다.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 생산을 통해 독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조직 문화 혁신과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 **중앙일보**는 AI 기반 제작 혁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사업군의 책임경영을 통해 수익 구조를 고도화한다. 균형과 진실 보도의 원칙을 지키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디어로 도약한다.

- **한국일보**는 AI 대전환을 전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콘텐츠·플랫폼·사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

용자 친화적인 고품질 콘텐츠와 새로운 플랫폼 실험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신규 수익원 발굴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한다.

## 경제·전문지

## 콘텐츠 고도화·플랫폼 재편으로 돌파구 모색

● **매일경제**는 창간 60주년을 맞아 AI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AI 에이전트 플랫폼도 선보인다. 60년간의 콘텐츠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해설형 콘텐츠와 AI웹툰, 퀴즈 등 다양한 독자 친화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 **브릿지경제**는 2026년을 ‘내실 성장의 해’로 설정하고 조직 안정과 수익 기반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한다.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 **서울경제**는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정비와 함께 조직 운영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 창간 70주년을 향한 ‘비전 플래티넘’을 선포하며 차세대 CMS와 AI 기반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통합 제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 **아시아경제**는 전사적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퍼스트 전략 고도화를 2026년 핵심 방향으로 추진한다. AI·산업·금융·바이오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킬러 콘텐츠 생산에 집중하고,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

● **아주경제**는 신문·방송·통신을 아우르는 제작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영상과 글로벌 콘텐츠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24시간 뉴스 생산 체제를 구축해 신뢰와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고, 실행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

- **전자신문**은 2026년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조직 체질 전환의 전환점으로 삼는다. 데이터 기반 유료 구독, AI 맞춤형 뉴스, 온·오프라인 통합 콘텐츠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

- **코리아타임스**는 디지털 전환을 발판으로 글로벌 독자를 겨냥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AI를 적극 활용해 뉴스 생산 효율을 높이고, 영어 뉴스라는 핵심 경쟁력을 고도화해 세계인이 신뢰하는 글로벌 뉴스 매체로도 약한다.

● **한국경제**는 콘텐츠 유료화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 강력한 온라인·영상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품격 프리미엄 콘텐츠를 확대하고, 문화·교육·미디어 마케팅 등 다각화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한다.

● **헤럴드경제**는 ‘헤럴디(헤럴드 디지탈화원)’를 중심으로 한 충성 독자층 확장과 AI 대전환을 2026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73년간 축적해 온 콘텐츠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신규 수익원 개발에도 나선다.



## ▶1면에서 계속

## 지역지

지역 밀착 콘텐츠로  
지역신문 가치 입증

- **강원도민일보**는 온·오프라인 영향력을 강화하며 지속 성장하는 미래형 지역신문을 지향한다. 지역 현안 공론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밀착형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뉴스 유통 경쟁력을 높인다.
- **강원일보**는 창간 81주년을 계기로 ‘참언론 100년’을 향한 도약을 본격화한다. 속보와 단순 정보는 기술에 맡기고, 현장 취재와 지역 맥락을 살린 심층 보도로 차별화를 꾀한다. 지방선거 보도를 통해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다.
- **경기일보**는 올해를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전환기의 해로 규정하고, 콘텐츠와 사업 전반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꾀한다. 직원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 **경남신문**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지역의 삶을 기록해온 언론의 책임을 재확인한다. 정확한 보도와 심층 분석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지방선거 보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북도민일보**는 지역 일간지로서

대구·경북의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구석구석을 찾아 시·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데 신념을 다한다.

- **경북일보**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취재·편집·유통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만이 담을 수 있는 맥락과 이야기에 집중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중심 역할에 집중한다.
- **경인일보**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조직 체질 개선을 2026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뉴스 플랫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수도권 대표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수익 구조 안정화와 투명한 경영을 통해 독자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한다.
- **광주일보**는 광주·전남 행정 협력과 초광역권 형성, 지방선거 국면에서의 책임 있는 보도를 통해 지역 현안 공론화에 주력한다.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흐름 속에서 지역의 미래 성장 전략을 짚는 역할을 강화한다.
- **대구일보**는 온라인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전사적 협업과 기자 중심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 조직 내 결속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운 이정표를 세운다.

- **대전일보**는 창간 76주년을 맞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심층 보도를 강화해 지역 여론 형성과 공론화에 앞장선다. 지역 사회의 주요 변화 국면에서 책임 있는 보도로 통합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매일신문**은 창간 80주년을 맞아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 역량을 결집한다.
- **부산일보**는 창간 80주년을 계기로 부·울·경을 대표하는 데이터·콘텐츠 허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영상 콘텐츠 강화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미디어콘텐츠 그룹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한다.
- **울산매일**은 지역 아젠다를 선도하는 참여형 언론으로 도약한다. 독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독자 맞춤형 정보, 전문가 협업을 통한 차별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전달 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뉴스 경쟁력을 높인다.
- **인천일보**는 조직 안정과 내실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혁신을 추진한다.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흔들림 없는 전진을 이어간다.

- **전라일보**는 ‘디지털 퍼스트, 로컬 베스트(Digital First, Local Best)’를 기조로 지역 저널리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심층 탐사·기획 보도를 강화한다.
- **전북도민일보**는 ‘진취적 도전’이 2026년 핵심 화두이다. AI 시대에 맞춰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뉴스 생산 전반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지방선거 보도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지키며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한다.
- **전북일보**는 올해 창간 76주년을 맞아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뉴스를 지면과 디지털 미디어 등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6·3 지방선거 유권자 중심 공정보도 △전북도민의 희망찬 삶 담은 연중기획 △디지털 로컬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둔다.
- **중도일보**는 창간 75주년을 맞아 기획 탐사보도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지역 여론을 선도하고, 사회 갈등을 조망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화한다.
- **중부매일**은 지령 1만호 발행을 계기로 네이버 CP사 진입을 목표로 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권력 감시와 문제 제기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

- **중부일보**는 창간 35주년과 지령 1만호를 맞아 지역 공동체의 지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디지털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통찰과 함께, 지역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 **충청투데이**는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로컬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한다. 혁신 TF를 통한 체질 개선과 콘텐츠의 멀티 플랫폼화 실현으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선 입체적인 로컬 플랫폼으로 성장한다.

## 통신사

신속·정확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

- **연합뉴스**는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구축해 더욱 신속·정확한 고품질 콘텐츠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인적·물적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아시아 1등 뉴스 통신 그룹으로 도약한다.
- **뉴스1**은 새해 국내 경제의 활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장적인 경영을 모색한다. 가속화하는 AI혁명에 맞춰 매체의 생존 방식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구성원을 위한 행복 경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AI의 뉴스저작물 ‘선 사용, 후 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신문협회는 지난 2일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 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문협회는 지난 2일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

### 신문협회, AI전략위에 ‘AI행동계획(안)’ 재검토 의견 전달

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로,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I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AI산업의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본 저작물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AI 서비스를 TDM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것은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유럽연합·싱가포르·일본 등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 투명성의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

권(옵트아웃)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투명성 결여 △RAG의 무임승차 방조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AI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얼마나 수집해 학습했는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

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빠진 한국형 AI 계획은 감감히 학습을 합법화해주는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끝으로 AI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면책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 ①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도입 전면 철회 ②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의무’ 법제화 ③ 뉴스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④ 실효성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옵트아웃’ 표준 제정 ⑤ 공정거래법상 지배력 남용 행위 조사 등을 제안했다.



### NIE 한국위원회 신년하례회

한국신문협회 산하 NIE 한국위원회(권영부 위원장)는 지난 13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올해 NIE 사업계획과 ‘AI 시대 NIE의 방향’ 및 ‘사업 후원기관’ 등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신문협회 산하 협의회 2026년 비전과 제언

###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해 경영 안정성 강화



장철환  
경영지원협의회 회장  
(서울경제 이사)

과히 역동적입니다. ‘AI’에 이어 ‘로봇’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삶의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편리해짐과 나태해짐의 사이에서 다가올 신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해 봅니다.

물론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과 여러 변수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저널리즘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제로 클릭’으로의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인력 운용 모델을 제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한 고민은 항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1976년 전국 18개 신문·통신사가 모여 창립한 경영지원협의회는 올해 창립 50회를 맞이합니다. 그간 12개 사가 더 가입해 현재 30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재료 협상’, ‘신문 용지 가격’, ‘노동관련 현안’ 등의 이슈에 대해 대응해 왔습니다. 2026년 협의회는 선배 신문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김과 동시에 회원 간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현안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확대, 산업안전 강화,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업무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신문인의 사명인 ‘뉴스콘텐츠의 가치 향상과 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깊이 재고해야 할 시기입니다. 향배가 불확실한 변화의 시대에 다시 한번 신문인의 마음 가운데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 정부광고 집행 방식 개선해 회원사 권익 확대



손용석  
광고협의회 회장  
(한국일보 상무)

지난 2025년은 신문사 광고 매출에 있어 무척 힘든 시간이었습니 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으로 큰 혼란을 빚었고 특히 한국은 수출 효과 중목인 철강과 자동차 업종 등에서 25~50%에 이르는 관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다수 신문사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대내외 경제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보 예산은 축소되었고 이는 회원사 광고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 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6월 대선과 10월 말 경주APEC 개최에 따른 일시적 상승 요인이 있었고 무엇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각사 광고현장을 지켜낸 협의회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병오년 새해 또한 신문 광고시장은 엄중하기만 합니다. SNS, 포털, 유튜브, 전광판, 구독모델 등 인쇄 효과를 위협하는 경쟁 수단들이 봇물처럼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만이 가지는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공기업의 역할을 알리는 정부 광고 집행에 회원사의 요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법원 경매광고 또한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새해는 동계올림픽으로 시작해 월드컵, 지방선거 등 이벤트가 적지 않습니다. 붉은 말처럼 질주하는 경제도약의 한 해를 기원하며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원사 모두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 뉴스콘텐츠 가치 보상받는 법·제도 기반 마련에 주력



권동형  
기조협의회 회장  
(한국일보 전무이사)

지나해 신문업계는 인공지능 발전과 언론 자유 규제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경영 내실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26년에는 AI가 신문 제작·경영·마케팅 등 전 분야에 일상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조협의회는 AI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신문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다음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빅테크 기업의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둘째, 신규 수익원 발굴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개선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국내외 미디어 기업의 혁신 전략을 벤치마킹해 회원사와 공유하고, 세제 지원과 기금 확대 등 신문산업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신문 저널리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조사·연구를 통해 신문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이자 모든 정보의 출발점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개별 신문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문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소통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회원사 AI 역량 강화’와 ‘뉴스 저작권 보호’ 집중



신한수  
디지털협의회 회장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

올해에도 디지털 뉴스 부문은 AI 기술의 발전 및 확산과 함께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포털 뉴스 아웃링크를 담은 신문법 개정 움직임 등에 따른 변화가 숨가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등 다양한 AI 산업 진흥정책을 내놓고 있고, 우리 회원사들도 빅테크와의 협업, AI 서비스 및 AI 저널리즘 도구 자체 개발, 사내 AI 전문조직 신설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머릿속에만 있던 AI가 현실로 자리잡는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협의회는 올해에도 미디어 업계의 당면 과제인 뉴스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계속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AI 관련 법제 제정이나 정책 수립, 공정위 조사 등의 과정에 우리 저작권자들의 목소리가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회원사들의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나해 처음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AI와 뉴스룸의 미래 기술 세미나를 발전시켜, 디지털/AI 전환 경험 공유를 통해 모든 회원사의 AI 역량을 고루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신규 제휴정책 또는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 서비스 환경 변화에도 회원사 전체의 권익 향상을 목표로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신문공동수송 지원 예산 확대 등 공동대응 강화



오병철  
마케팅협의회 회장  
(문화일보 독자마케팅국장)

2025년은 안정적 신문유통망 구축과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도전 과제와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신문공동수송망 개편, 소외계층 구독료·신문유통 지원, 신문구독 및 마케팅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마케팅협의회는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문유통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각적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추진했습니다. 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신문공동수송 및 배달시스템 효율성 제고 방안’ 조사연구사업에 참여해 신문유통시장의 변화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자TF를 통해 △신문공동수송사업 매칭펀드(정부지원 매칭펀드) △외국인 근로자 신문배달업 유입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정책제안서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신문공동수송사업 지원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2025년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케팅협의회는 올해 전 회원들과 단합 및 결속을 다지며,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마케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단합과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정책협의를 강화해 신문유통시장 지원을 제도화하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회원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사 동정

강원일보, ‘강원의 역사展-화천의 어제와 오늘’

강원일보(발행인 박진오)는 오는 2월 1일까지 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원의 역사展-화천의 어제와 오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천군민들과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강원 지역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난 80년간 강원일보의 다양한 특종 보도, 대한민국 미디어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news.co.kr).

경인일보, 대화형 AI ‘K-인사이트’ 도입

경인일보(발행인 홍정표)는 지난 4일 대화형 AI 뉴스 검색 서비스 ‘K-인사이트’를 도입했다. K-인사이트는 80년간 누적된 경인일보 뉴스 데이터를 토대로 독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K-인사이트 요약’을 통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기사 속 정보만 정리해 주거나, ‘K-인사이트 브리핑’으로 기승전결을 갖춘 종합 브리핑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인일보 홈페이지(www.kyeongin.com).

국민일보, ‘신낭만사회’ 전시회

국민일보(발행인 김경호)는 오는 2월 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The Neo-Romantic Society)’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

상 대상을 받은 심규철의 <고구려 행군>을 비롯한 수상자 13인의 작품 총 38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전시 인스타그램(@kukmin\_daily\_art).

매일경제, 언론사 최초 경제교과서 출간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한국소비자원, 충청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개발한 중학생을 위한 경제 교과서 ‘소비 생활과 경제’를 출간한다. 이교과서는 지난 6일 충북교육감 승인 인정도서 심사를 최종 통과했으며, 언론사가 집필 및 제작에 참여해 승인까지 받은 첫 사례이다.

브릿지경제, ‘2025 맘스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

브릿지경제(발행인 조진래)는 맘스커리어와 공동으로 엄마들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2025 맘스 베스트 브랜드 어워드’를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어워드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엄마들의 마음을 담아 브랜드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엄마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브랜드에 2월 8일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브릿지경제 홈페이지(www.viva100.com).

세계일보, 다문화시대 참일꾼을 찾습니다

세계일보(발행인 이기식)는 오는 2월 27일까지 2026년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 후보를 추천받는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상은 다문화 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기관을 선발해 다문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문의는 02-2000-1574~5.

전북도민일보, 제11기 CVO과정 원우 모집

전북도민일보(발행인 신호균)는 오는 31일까지 ‘제11기 CVO과정 원우’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성공학, 교양시사, 혁신경영학 등 각 분야의 명성 있는 강사진의 명강의를 통해 비전창조의 지혜를 모으고 시대를 리드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CEO, 공직자, 공공기관 사회단체장 등이며 모집인원은 80명이다.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이며, 등록금은 495만원(VAT 포함)이다. 문의는 전북도민일보 CVO 담당자(062-259-2121).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3기 원우 모집

전북일보(발행인 서창훈)는 오는 31일까지 ‘리더스아카데미 13기 원우’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기업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 정부기관·자치 단체

장 등이며 모집인원은 80명 내외이다. 강의시간은 매주 화요일이며, 등록금은 550만 원이다. 문의는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사업단(063-250-5653, 5655).

중앙일보, ‘에스프레소 투샷’

중앙일보(발행인 박장희)는 지난 5일 고품격 국제 이슈 분석을 제공하는 ‘에스프레소 투샷(Espresso Two Shot)’ 서비스를 선보였다. ‘에스프레소 투샷’은 중앙일보 디지털 유료 서비스인 더중앙플러스 회원 전용 뉴스레터 ‘뉴스 에스프레소(News Espresso)’에 더해 영국 권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최신 글로벌 이슈를 국내 독점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더중앙플러스 홈페이지(www.joongang.co.kr/plus).

한겨레, 제31회 ‘한겨레문학상’ 공모

한겨레(발행인 최우성)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제31회 한겨레문학상’을 공모한다. 한겨레문학상은 1996년 제정돼 문단의 주목과 독자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공신력 있는 장편소설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상금은 3,000만 원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0장 안팎이다. 응모 자격은 기성·신인 제한 없으며 결과는 5월 말 발표한다.

헤럴드경제, ‘헤럴드 통합 앱’ 출시

헤럴드경제(발행인 최진영)는 지

인사

충청투데이 새 발행인에 홍경선 전 상무



충청투데이의 지난 12월 29일 새 발행인에 홍경선 전 상무(사진)를 선임했다.

**학력**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약력** △충청투데이 문화사업국 부국장 △충청투데이 전략사업국 상무이사 △충청투데이 상무·기획조정실장

난 6일 코리아헤럴드와 공동으로 헤럴드 통합 앱을 출시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번 통합 앱 출시로 헤럴드 디지털 회원인 ‘헤럴드디안(heraldian)’의 콘텐츠 경험을 확장한다. 통합 앱은 독자와 소통하는 양방향 서비스 체계로 업그레이드됐으며, 독자가 손쉽게 개인별 AI 에이전트와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연중 도입한다. 앱은 헤럴드 홈페이지 배너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청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 2026년 한국신문상을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뛰어난 취재·보도 활동을 통해 한국 신문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언론인을 표창하기 위해 한국신문상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부문

- 뉴스취재보도 부문
- 기획·탐사보도 부문

■ 공모대상

-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재직 중인 언론인으로 소속사 발행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신청 건수에 제한 없으며 시상부문별 중복 추천 가능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공적(신문 보도)

■ 구비서류

- 추천서 1부(소정양식), 공적자료 1부

※ 추천서는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적자료와 함께 웹하드 ‘한국신문상 공적자료’ 폴더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시상

- 공모부문별 상패와 상금 500만원(각 부문별 최대 2건 시상)

■ 접수마감

- 2026년 1월 30일(금) 17:00까지

■ 시상일자

-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2026년 4월 7일)

■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담당자 (02-722-4361)
- 웹하드(www.webhard.co.kr) ‘한국신문상 공적자료’ 폴더 (아이디 : presskorea / 비밀번호:2251)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